학자를 만나다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붓다나라 대표)

“근본을 알라…그러면 불교가 명쾌해진다”

生死 근본 자리 궁금했던 청소년
선배 영향으로 佛緣 맺고 출가
軍 제대 후 불교학 연구에 매진해

‘근본불교’ 연구로 학계 연구 선도
니까야로 금강경, 반야심경 해석
‘정선 니까야’ 시리즈 내놓기도

퇴직 후 재출가, 태고종서 수계
‘붓다나라’ 열고 불교운동 전개
“불상 아닌 ‘불경’ 중심 불교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각 이중표 명예교수는…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불경〉〈인간 붓다〉 ‘정선 니까야 시리즈’ 〈붓다의 철학〉〈니까야로 읽는 금강경〉〈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등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불교와 양자역학〉 등이 있다.

근본(根本).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본질을 의미한다.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근본’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세상 물정 모르던 질풍노도의 청소년이 불문(佛門)에 들어 사문이 됐다가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이제는 다시 출가해 불교교육운동을 전개하는 스님이 되기까지 여정은 불교와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이렇다.

말썽꾸러기, 불교에 미치다

이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중고등학교 시기 그는 “도무지 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지 못했던” 말썽꾸러기였다. 재미없는 것은 당최 참지 못하는 성정에 학교 공부는 도무지 입맛에 안 맞았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면 무작정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것은 모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선배 학담 스님과의 인연이다. 고향이 같았던 이 명예교수는 학담 스님과 기차 통학을 하며 만났고, 스님은 그를 광주 관음사로 이끌었다. 당시 광주 관음사는 불교 강의 중심의 법회를 열며 새로운 포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명예교수는 학담 스님과 함께 통학하며 신행생활을 했고, 성적도 자연스레 좋아졌다.

성적이 올라 안심했던 아버지는 광주에 자취집을 얻어주며 지원했으나 예전의 습(習)이 남아있던 이 명예교수는 다시 방황했다. 하지만 학담 스님이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관음사에서 불교 신행생활을 시작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법사님의 법문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화창하고 꽃이 만발한 광주공원에 경찰에 쫓기던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도둑의 눈에 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선량한 가족이 공원으로 소풍을 왔다면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요. 그렇다면 이 공원은 행복한 곳입니까, 불안한 곳입니까?”

법사님의 질문에 이 명예교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관계로서 존재가 형성된다’는 부처님 연기법 가르침이 처음 머리에 들어왔다. 이 같은 가르침을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광주고등학생불교학생회’를 창립했고 자신의 학교에서만 15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창립을 주도하다보니 스스로 유급을 자청해 고등학교만 4년을 다녔다. 그 정도로 당시 이 명예교수는 불교에 미쳐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에 입학했던 학담 스님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배님, 서울대 법학과까지 진학해서 왜 출가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선배가 수행하고 있다는 경주 분황사로 갔죠. 결국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야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나주의 다보사. 다보사에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삶을 살고 있던 우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우화 스님에게 ‘무(無)’자 화두를 받고 한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마치라’는 주변의 권유로 다시 내려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출가 사문서 불교학자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광주 관음사 주지였던 상인 스님과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상인 스님은 이 명예교수의 불교학생회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평소 상인 스님은 “기도, 불공 중심이 아닌 법회 중심의 도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력을 가졌고 ‘불국원’이라는 단체를 창립해 인재불사에 들어갔다.

“상인 스님이 창립한 ‘불국원’은 30년 불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인재를 키워 55명의 지도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방송국, 양로원, 수련원 등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스님은 제게 ‘출가를 결심했으면 산에 있지 말고, 대학에서 현대적 학문을 배워라’고 하셨고, 스님 문하를 출가한 이후에는 전남대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상인 스님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불국원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방학이면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도반들과 4년 동안 저명한 학자들의 불교 강의를 들었고, 이때 초기불교 연구의 대가 故고익진 동국대 교수와 인연이 됐다.

“군대를 제대하고 왔더니 사찰에 내 방도 없어졌고, 불국원 불사도 안타깝게 흐지부지됐어요. 고민하던 중 고익진 교수님이 서울에 와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교수님의 집에서 숙식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때 불교 공부에 대한 눈을 뜨게 됐죠.”

1982년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은사의 길을 따라 불교학 연구에 매진했다. 산스크리트어, 빨리어를 공부했고 〈아함경〉을 보며 학문적 체계를 잡았다. 용수의 제자 제바의 저서 〈백론〉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를 통해 초기불교를 중관사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명예교수는 ‘아함의 중도체계’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 1992년 도서로도 출간된 논문을 통해 이 명예교수는 빨리어 경전인 〈니까야〉를 바탕으로 중관사상의 원류를 조명했다. 특히 이 명예교수는 붓다가 깨닫고 증명한 진리 안에서 철학적 제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인식·존재·가치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입증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2018년 〈붓다의 철학〉으로 증보 발간되기도 했다.

‘정선 니까야’부터 ‘불경’까지

〈니까야〉를 통한 불교 탐구는 이 명예교수의 오랜 연구 주제였고, 이는 일련의 저작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니까야로 읽어낸 저서들을 통해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근본경전 안에 이미 대승의 가르침들이 내재됐음을 주장했다. 이는 저서 〈근본불교-붓다의 원음〉(2021)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명예교수는 〈아함경〉 〈니까야〉 등의 초기 근본경전을 교단 분열 후 생긴 부파불교의 전유물로 봐서는 안되며 부파와 대승이 함께 공유한 경전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대승불교 성립 이후 여러 경전의 뿌리는 〈아함경〉 〈니까야〉 같은 근본경전에 있으며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근본불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주된 논지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굉장히 왜곡돼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아비달마 불교가 초기불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비달마 불교는 관계 이전에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존재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붓다는 존재라는 허상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인식의 결과물인데, 이를 전제 하에 불교를 설명한 것이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이를 반박하며 공(空)을 강조하는 반야사상이 등장하고 이는 초기 대승불교로 형성됐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불교 경전을 통해 불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승을 보면 불교는 어렵지 않고 명쾌해집니다.”

이 명예교수의 주장들은 우리가 당연한 듯 알고 있는 상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천착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저서인 〈윤회와 해탈〉이 그렇다. 그는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애초 “윤회의 유무는 신앙적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명징하게 이야기한다. “붓다는 윤회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윤회설은 붓다의 열반 후 오랜 시간을 거쳐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정립된 것입니다. 생사윤회는 중생들이 자아라는 존재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착각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러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설이고 무아설입니다.”

근본불교 연구 결과를 담아낸 것이 앞서 소개한 저서였다면, ‘바르게 불교를 알려야 겠다’는 불교운동가적 관점에서 이뤄진 저작들이 바로 ‘정선 니까야 시리즈’와 〈불경(佛經)〉(2024)다. 〈정선 디가 니까야〉(2014)부터 〈정선 맛지마 니까야〉(2016) 〈정선 쌍윳따 니까야〉(2021) 〈정선 앙굿따라 니까야〉(2023)까지 발간된 ‘정선 니까야 시리즈’는 2007년 연구년을 맞아 미국에 있을 때 번역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엘리트 계층에게 명상과 불교는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도 티베트, 태국, 일본불교가 중심이 돼 있었다.

“바르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니까야를 잘 번역하고 중요 구절을 잘 선별해서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번역이 완료되기까지 약 16년이 걸렸네요.”

〈불경〉도 마찬가지다. 불교 경전을 통한 바른 불교 공부를 위해 수많은 경전의 핵심들을 정선해 펴낸 것이다. 1448페이지,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율장〉에 근거해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고, 전법하고, 계율을 제정하고, 교단을 형성한 과정과 붓다 사후 이뤄진 결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에 담긴 붓다 가르침의 정수를 펼쳐 보인다. 출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 명예교수는 “〈불경〉 한 권을 위해 16년 동안 모든 저작들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요즘에는 〈불경〉을 영역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경〉을 공부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들도 개발 중이죠. 제 주장의 핵심은 기도와 불공 중심의 불교에서 불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행자로…

최근 이 명예교수는 불교 교육 등 전법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신행단체인 ‘붓다나라’를 창립했다. 이는 은사였던 상인 스님의 ‘불국원’의 명칭을 계승한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평소 인연이 있던 태고종의 수진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받아 고민 끝에 수진 스님 문하로 다시 출가했다. 이 역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명예교수가 이끄는 ‘붓다나라’는 ‘온라인 열린불교대학’과 수행센터 ‘다르마의 숲’을 운영하며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대학 온라인 동양상 강의에는 이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영근·정병삼·최연식·양형진 등 석학들이 참여했다.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채널 ‘붓다나라TV’를 통해 아침명상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한다.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아침명상은 ‘붓다나라 108예경문’을 봉독하며 108배를 한 뒤 명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3000~4000명 가량이 함께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올해 하반기에는 ‘니까야’를 통해 ‘기신론’을 살펴보는 강의를 계획 중에 있어요. 사이버 강의 중심의 불교대학도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체계로 변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교육운동을 시작한 만큼 불교를 쇄신할 수 있는 불사를 하고 싶습니다.”

말썽꾸러기 고등학생이 불교에 빠져 출가와 속퇴 후, 불교학자의 길을 걷다가 다시 사문이 돼 전법의 길을 가고 있다. 흔들림 없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진득하게. 근본을 찾는 그의 여정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